

第24回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出演作品

(民俗놀이)

峨嵋山을어리



때 1983. 10. 21 ~ 23

곳 : 경상북도 안동시 공설운동장

京畿道



경기도의 노래

이은상 작사
이홍열 작곡

(전주)씩씩하게

(후렴)

f 1. 삼각산 솟은 아 래 고 을 고 을 이
2. 한 강이 솟은 아 래 고 갈 들 아 울 이

나 라 의 힘 과 자 랑 여 기 에 있 다

긴 역 사 아 로 새 긴 전 통 의 터 전
기 름 진 마 을 마 — 을 생 환 의 무 대

문 화 의 낙 토 건 설 우 리 손 으 로

충 의 와 학 문 예 술 빛 나 는 유 직
너 와 나 손 목 잡 고 한 마 음 한 뜻

통 일 을 다 짐 하 는 보 람 찬 행 진

겨 레 의 일 이 깃 든 우 리 경 기 도
힘 차 게 살 아 가 는 우 리 경 기 도

앞 장 서 우 리 조 국 새 역 사 깃 자

案内의 말씀

우리 京畿道는 第24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에 漣川地方에서 傳해 내려오는 民俗놀이 「峨嵋山 울어리」를 出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곳 漣川地方은 山水가 아름답고 人心이 淳厚한 고장으로 宝蓋山과 君子山の 精氣를 이어받은 郷土文化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高麗에서 朝鮮時代에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이 「峨嵋山 울어리」는 겨우살이 땃감(林産燃料)을 준비 하면서 한가위를 앞둔 마을 주민들이 和平와 團합을 다지고 豊年에 感謝하는 素朴한 산골마을 농민들의 놀이입니다.

이 놀이에서 여러분은 나무꾼이 부사행세를 하고 또 메기고 받는 노래 대사에서 풍기는 諧謔的인 멋과 庶民的인 분위기를 함께 나누실수 있을것입니다. 特히 놀이의 全体흐름에서 우리는 우리祖上들이 이웃을사랑(隣保相助) 하고 손을 모아 일하는(勤勉協同) 참모습을 再發見할수 있는 契機가 되기를 바라면서 産業化에 밀려나는 이 나무꾼 놀이가 永遠히 保存 傳授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聲援과 指導를 바랍니다.

峨嵋山 울어리

해설

오곡이 풍성한 추수전에 산마을 주민들이 한데모여 산에서 농요를 흥겹게 부르면서 겨울 땔나무를 베고 석양이 되면 잡목과 남여(가마)를 만들어 영좌(년장자)를 태우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놀이를 벌이는데 이때 영좌는 양반(부사) 행세를 한다.

마을에서는 부농을 골라 그집 마당에서 풍년을 구가하며 농악과 노래소리에 맞추어 한바탕 마당놀이를 벌인다음 주인이 마련한 음식을 먹고 노는 민속으로서 마을주민의 화평단합을 다지며 풍년에 감사하는 소박한 농민들의 놀이이다.

유래 및 특징

울어리는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 왔다고 하나 문헌상의 기록은 없고 다만 고려시대 마전군이었던 현 연천군 미산면 중면(미수복지구) 신서면(군사분계선) 일부지역에서 연희되어 왔고 영좌, 부사등의 말을 쓴 것으로 보아 고려대에서 이조대를 거쳐 온듯 하다.

고노들의 증언에 따르면 8.15광복전까지 연천군 중면일대에서 세습적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광복후 남북분단으로 중단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농경에서 불렀던 농요는 많이 보존되었으나 겨울살이를 대비한 연료채취를 하면서 부른 농요는 흔하지 않다.

울어리 놀이의 음악성과 그 소재

울어리 놀이에는 3개의 노래가 불리워 지는데 그 음악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교창형식 : 일반 노동요와 같이 모두 앞소리와 뒷소리로 나누어진다.

2) 음계구성 :

① 울어리 (나무 벨때 부르는 노래)

앞소리; Ab · Db · Eb · F (4도 · 2도 · 2도)의 4개음으로 되어 있으나 F 음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뒷소리; Ab · Db · Eb (4도 · 2도)의 3개음으로 되어 있다.

② 둥계타령 (남여와 영좌의 춤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앞소리, Ab · Db · Eb · Ab (4도 · 2도 · 4도)의 4개음으로 되어 있으며 새타령 (새야새야 파랑새야)의 음진행 배열과 동일하나 리듬만이 다른 점 매우 흥미롭다.

③ 방아타령 (모두 같이 부르는 노래)

울어리와 같은 구성음으로 되어 있으나 종지음이 Eb으로 되어 있다.

3) 리듬의 소재 :

일반 노동요와 같이 앞소리는 창자의 즉흥적이며 비교적 사설적인 노래이기에 가락의 길이도 변하거니와 리듬도 다양스러워 진다. 반면 뒷소리는 항상 같은 리듬으로 받는다.



줄 거 리

꽃나무베기

이른 아침 농악소리를 신호삼아 마을일꾼들은 감발을 하고 낫과 솥돌등 나무벨 차림으로 산에 오른다.

일꾼들이 모이면 상겨리, 중겨리, 하겨리등 두세패로 갈라 나무베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때 상, 중, 하겨리에서 번갈아 소리를 메기고 받으며 일을 한다.

소리 줄거리를 대강 엮어 보면

메김 : 올라가네 상상봉 대마루턱으로 올라가네

받음 : 오오오—오오오 (이하 받음소리 같음)

메김 : 상겨리서 올라가면 하겨리도 올라가네

“ : 어기어차저 일심협력 울어리 소리 되네

“ : 잡목은 무성하고 잡풀은 돌아가네

“ : 금년에도 풍년이니 농가마다 풍요하네

“ : 아들나면 효자되고 딸을나면 열녀되네

“ : 일가대소 무고하고 만수무강 축원하네

“ : 일락서산 해떨어지고 월출 동녘 달이 솟네

“ : 어기어차저 또다시 올라가네

“ : 서해용왕 고래타고 우리농부 남여타네

“ : 오늘은 여기서 놀고 내일은 들에서 일하세

남여행차

일이 끝날무렵 몇사람은 잡목과 칩을 베어 남여(가마)를 만들고 일꾼중
년장자를 태워 남여부사라 칭하여 양반행세를 하면서 마을로 가는 길놀이
를 벌이는데 맨앞에 길라잡이가 인도하고 한 사람이 소리를 메기면서 간다.

메김 : 에헤라 끼루끼루 남여부사 잘모셔라

받음 : 에헤라 끼루끼루(이하 받음소리 같음)

메김 : 에라이눔 물러가라 칠라가라 남여부사 행차시다.

” : 식전 팔십리를 왔으니 헛덧증도 나는구나

: : 한양이 몇백린가 어서어서 아뢰어라

” : 에라 그들판 오곡이 풍성하다.

” : 일락 서산해가지고 저녁연기 자욱하다.

소리를 메기고 받으면서 마을까지 온다음 남여 부사는 해가 저물었으니
이동네에서 쉬어가기를 명한다음 부농가로 들어가 하루밤 쉬어가자고 수작
한다.

집주인이 마지 못해 허락하고 음식을 마련하는 동안 한바탕 마당놀이를
하도록 권하면 남여 부사는 실컨 놀것을 명한다.





충청남도 공주시의 농기싸움. 농기싸움은 마을의 명예를 대표하기 위하여 고관천민을 막론하고 누구든 그 농기앞에서는 경의를 표하게 마련이다. 또한 농기에는 등급이 있어 하급농기는 상급농기에게 먼저 기선을 기우려 절을 하여야 한다. 만일 하급농기가 상급농기를 보고도 절을 않거나 상급농기가 답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대 충돌이 일어나며 사상을 무릅쓰고 싸우게 된다.

농기싸움

농악대에는 반드시 농기가 있게 마련이며 이 농기는 마을의 명예를 대표하기에 농기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고관천민을 막론하고 누구든 그 농기앞에서는 경의를 표하게 마련이다. 또한 농기에는 등급이 있어 하급농기는 상급농기에게 먼저 기선을 기우려 절을 하여야 한다. 만일 하급농기가 상급농기를 보고도 절을 않거나 상급농기가 답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대 충돌이 일어나며 사상을 무릅쓰고 싸우게 된다.

이 “울어리놀이”에서도 농기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에 진 패거리는 항복의 뜻으로 농기를 어깨뒤로 제쳐메고 부사는 남여에서 내려 큰절을 한다. 그리고 남여에 오르기를 사양한다.

그러나 승자의 부사는 아량을 베풀어 남여에 오르기를 권한다. 남여에 오른 두부사는 화기애애하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승자의 산주집으로 행진을 계속한다.

마 당 놀 이

남여를 메고 마당을 돌면서 일년 열두달을 엮어 둥게 타령을 메기고 받으며 마당을 도는데 남여부사는 남여위에서 춤을 덩실덩실춘다.

집주인도 흥에겨워 양반체모도 잊어버리고 마당으로 나와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

열두달의 메김대사를 추려보면

메김 : 너도 나도 서로서로 땀흘리며 짓는 농사

- ” 올가을 풍년정에 노적가리 쳐다보고
- ” 콩섬뭉어 장에넣고 벼를 찢어 독에 붓네
- ” 사랑방에 지적매고 안방에서 베를 짜네
- ” 길쌈해서 옷을 짓고 지적매여 배석허라
- ” 이택인심 풍부하니 만수무강 비나이다.

농악과 소리에 맞추어 한바탕 놀이가 끝나면 주인집에서 마련한 음식을 먹고 일동이 술상을 장단마쳐 치며 잡가로 노래한다.

구 성

- 고증및발굴채집 : 김 순 제 (인천교육대학 교수)
- 출 연 지 역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백석리·일원
- 임 원 : 추진위원장 : 이 재 순
 부 위원 장 : 이 병 우
 추 진 회 장 : 신 효 철
 재 무 : 심 중 섭
 총 무 : 구 본 용

놀이꾼

순번	배역	성명	년령	순번	배역	성명	년령
1	기잡이(대기)	구본준	38	36	나무꾼	송영춘	63
2	중기(청기)	권영희	43	37	"	송영직	43
3	흥기	이상욱	34	38	"	송영윤	48
4	영기	신진철	60	39	"	송심재	53
5	영기	최병철	49	40	"	김정봉	52
6	상쇠	이병우	46	41	"	최만득	30
7	부쇠	이재준	30	42	"	김승수	50
8	"	김창희	46	43	"	송영숙	49
9	"	이원옥	61	44	"	송재섭	38
10	태징	송응채	60	45	"	장사성	40
11	"	박상원	40	46	"	심태섭	42
12	장구	구본진	44	47	"	박만수	40
13	"	정봉근	47	48	"	임종순	57
14	북	송영복	47	49	"	최병도	57
15	"	정이만	73	50	"	김유동	39
16	호적	구자동	63	51	"	김재봉	53
17	"	이창혁	46	52	"	이중희	53
18	주인대	송영선	70	53	"	이재항	45
19	영좌	남궁백	70	54	"	이정민	44
20	"	신효철	50	55	"	이현구	50
21	마당쇠	남궁목	36	56	"	이재근	60
22	선소리	김복진	73	57	"	이정우	48
23	후소리	송영운	65	58	"	정윤수	47
24	동개타령	이재순	55	59	"	남달우	42
25	나무꾼	김창희	55	60	"	이우복	49
26	"	심종섭	51	61	"	이우동	50
27	"	이정근	62	62	"	이영우	48
28	"	김근수	38	63	"	정영도	37
29	"	구본홍	50	64	"	송우섭	43
30	"	구본항	47	65	"	김명수	36
31	"	김태완	46	66	"	김재환	40
32	"	구본포	39	67	"	김문수	53
33	"	김태화	47	68	"	안재만	37
34	"	조남천	43	69	"	신연철	48
35	"	권오기	43	70	"	김연수	70



송 의 전

울어리놀이 고장의 명산「아미산」에 자리잡고 있는 사적 제223호 송의전은 고려 태조를 비롯한 7왕의 신위와 고려 건국 16공신을 모신 사당이다.